

대만영화에 나타난 붉은 실과 월하노인 서사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게 있어(月老)〉를 중심으로

연소영*

목 차

1. 서언
2. 전통시기 월하노인과 붉은 실 서사
3. 영화 <月老>에 나타난 계승과 변주
 - 1)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저승
 - 2) 저승관리들
 - 3) 인과응보와 환생
 - 4) 월로와 붉은 실
4. 결어

국문초록

월하노인과 붉은 실 서사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사 속에서 결혼과 인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월하노인이 붉은 실을 묶어 인연을 맺어 준다는 내용은 唐代『續玄怪錄』의 <定婚店>에서 보이며, 월하노인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이 <정혼점>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화 <月老>의 서사 기원이 되는 <정혼점>을 비롯한 <閻庚>, <灌園女嬰>을 살펴보고, 영화 <월로>와 비교하여 수용된 점과 변화된 점 등을 고찰하여 그 계승과 변주를 밝혔다. 아울러 영화 <월로>의 현대적 변주를 살피기 위해 월하노인 서사 뿐만 아니라 전통시기 환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고전서사나 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가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자 감독인 지우바다오가 영화 <월로>에서 구현한 현대적 변주를 파악하고 그 의의를 드러냈다.

키워드: 붉은 실, 월하노인, 정혼점, 염경,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게 있어, 月老

1. 서언

이 논문의 목적은 전통시기 붉은 실과 월하노인 서사가 현대 영화에 어떻게 계승되고 변주되고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월하노인과 붉은 실 서사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사 속에서 결혼과 인연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하노인이 붉은 실을 묶어 인연을 맺어 준다는 내용은 唐代 『續玄怪錄』의 <定婚店>에서 보이며, 월하노인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이 <정혼점>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게 있어>는 2021년 대만에서 상영된 영화로 본제는 <月老>, 즉 월하노인을 뜻한다(이하 <월로>로 약칭한다). 본래 <월로>는 소설작품으로, GIDDEN와 九把刀가 함께 지었는데¹⁾, 지우바다오가 자신의 작품을 원작으로 감독을 맡아 제작한 것이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게 있어’라는 것은 주인공 小綸이 어린 아이 때 小咪에게 청혼하면서 한 대사이다. 2021년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7월 8일 최초로 상영되었고, 대만영화제에서도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9월 23일 공개되었다. 그 후 대만에서는 2021년 11월 24일, 한국에서는 2022년 2월 9일 개봉했다. 대만 박스오피스 2021년 48주~50주 총 3주동안 1위를 기록했으며, 흥행수입 2억 3532만위안을 돌파하며²⁾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다. 제59회 金馬獎 영화제에

1) GIDDENS, 九把刀, 『月老』, 紅色文化出版社, 2002.

2) 모종혁, <모종혁 2021년 대만 영화산업 결산>, 『통신원 리포트』 권20호, 영화진흥위원회, 2022, 4-7쪽

서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3개 부분을 수상한 작품이다.

영화 <월로>에 관한 연구는 한국, 중국, 대만에 걸쳐 아직 전무하다. 영화 <월로>는 붉은 실과 월하노인의 모티프에 저승에서 환생하는 이야기가 결합된 독특한 내용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원과 관련 내용이 어떻게 현대 대만 영화에서 수용, 변용되었는지 그 계승과 변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전통모티프와 전통서사가 어떻게 현대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고찰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화 <월로>의 서사 기원이 되는 <정혼점>을 비롯한 <閻庚>, <灌園嬰女>를 살펴보고, 영화 <월로>와 비교하여 수용된 점과 변화된 점 등을 고찰하여 그 계승과 변주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영화 <월로>의 현대적 변주를 살피기 위해 월하노인 서사 뿐만 아니라 전통시기 환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전서사나 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이자 감독인 지우바다오가 영화 <월로>에서 구현한 현대적 변주를 파악하고 그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

2. 전통시기 월하노인과 붉은 실 서사

월하노인과 붉은 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정혼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옥당한화』의 <염경>고사가 가장 이른 시기 작품으로 보이나, ‘월하노인’이 등장하는 고사는 이 <정혼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관원영녀>를 포함해 세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당대 李復言의 『속현괴록』에 수록된 <정혼점>이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고라는 사람은 일찍 혼인하고 싶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차에, 여행 중 宋城에서 어떤 객점 손님이 혼담을 꺼내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달빛 아래 주머니에 기대앉아 달빛에 대고 글을 읽던 노인이 있기

에 물으니, 글은 저승의 글이고 자신은 저승의 관리이며 혼인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위고가 자신의 혼사를 묻자, 아내가 될 사람은 세 살이며, 17세가 되어야 혼인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붉은 줄로 부부가 될 사람의 발을 묶으면 원수, 귀천, 거리에 상관없이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고의 아내가 될 것이라 말하는 세 살 난 여자아이는 객점 북쪽의 채소 파는 애꾸눈 할멈의 딸이었고, 위고는 그것을 싫어해 노복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죽이게 한다. 노복이 칼을 숨기고 시장 사람들 속에서 아이를 찌르고 도망갔는데,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미간을 찌르게 된다. 이후 14년이 흘러 위고는 相州參軍이 되었고, 그 州의 刺史 王泰가 그를 능력있게 보아 자신의 딸과 결혼시킨다. 그녀는 미간에 꽃장식을 붙이고 잠시도 떼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부친이 죽고 어머니와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유모가 채소를 팔아 자신을 돌보았고, 훗날 숙부가 자신을 딸로 삼아 위고에게 시집보냈음을 털어놓는다. 위고는 유모가 애꾸눈임을 묻고, 그렇다고 하자 놀라며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준다. 이후 두 사람은 기이해하며 더욱 서로를 공경하게 되었고, 송성의 태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객점을 ‘定婚店’이라 이름 붙였다.

두 번째는 당대 『광이기』의 <염경>이다. 염경은 낙양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가난한 문인 張仁奩의 인품을 흠모하여 부친의 재물을 훔쳐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 염경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것을 안 장인단은 떠나게 되는데, 염경은 배움에 뜻이 있어 그와 함께하기로 한다. 陳留의 객사에서 장인단이 한 비범한 손님을 알아보고 함께 술자리 후 그에게 여정을 묻자, 자신은 저승의 관리[地曹]이며, 명부의 명으로 하북지역의 혼인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남녀의 발을 묶어준다고 했다. 그는 보따리에 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믿고 자신과 염경이 누리게 될 지위와 수명을 묻는다. 그리고 염경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묻자, 귀한 관상을 지닌 여인과 짝지으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미 짝지은 왕씨 딸의 줄을 풀어 염경과 묶어준다. 둘은 왕씨의 집에 가서 기존 혼담이 깨진 것을 보고, 장인단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라 하면서 혼담을 주선한다. 이후 염경은 刺史에까지 오른다.

세 번째는 당오대 『옥당한화』의 <관원영녀>이다. 어떤 秀才가 혼인하고자 했으나 짝을 얻지 못했기에 역술에 밝은 사람을 찾아 물었더니, 점쟁이는 부부가 되는 인연은 전생의 인연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장래 부인될 이는 두 살이며, 과수원집 딸이라고 했다. 수재는 스스로 이름 있는 집안의 촉망받는 인재라고 생각하여 문벌 귀족 가문에 구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점쟁이의 말을 듣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믿지 않았으나, 후에 확인해 보니 점쟁이의 말과 같았기에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아이를 피어내어 정수리에 가는 침을 찌러넣고 떠났다.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 여겼으나 죽지 않았으며, 나중에 고아가 된 그녀를 廉察使가 기르게 되고, 그녀의 슬기로움에 딸로 삼는다. 훗날 수재는 과거에 급제하여 염찰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풍채를 마음에 들어 한 염찰사가 딸을 시집보낸다. 수재는 기대보다 많은 예물과 아내의 미모에 옛날 점쟁이의 요망함을 책망했다. 이후 날이 흐릴 때면 부인은 두통을 앓아 진맥했더니 의사는 정수리에서 침을 뽑아냈고, 그 일로 부인의 출생에 대해 물어보자 바로 그 과수원집 딸이었으며 점쟁이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세 작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하노인’, 즉 ‘달빛’ 아래 ‘노인’이 혼인 명부를 들고 인연의 붉은 실을 묶는 다는 내용은 <정혼점>에서만 나온다. 그런데 이 월하노인의 정체를 살펴보면 바로 ‘저승의 관리[幽吏]’이고, 혼인 문서에 적힌 글은 바로 ‘저승의 글’이다. 월하노인을 인연을 맺어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월하노인이 신격화된 영향이 크다. 중국에서는 宋代부터 이 이야기가 민간신앙화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도교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앙의례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특히 송대에 이르러 이러한 의례가 크게 유행했다. 오늘날 대만의 남부도시 臺南의 사당에는 월하노인 신앙을 안치하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이다. 대륙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월하노인을 봉인하게 되었다.³⁾ 西湖 白雲庵에도 월하노인의 祠堂이 있는데,

3) 전영숙, 「한·중 인연신 월하노인 설화의 전개 양상 비교」, 『語中文學』, 2020, 81-83쪽. 南宋代 이후 신랑신부가 붉은 천을 마주잡고 결혼식을 행하는 민속 또한 이 고사 민간신앙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사당 안에 월하노인상이 안치되어있다.⁴⁾

<염경>에서도 끈으로 남녀의 발을 묶는 것이 나오나 붉은 색은 아니며, ‘細繩’ 즉 ‘가는 끈’이라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노인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신분은 <정혼점>과 같이 자신을 地曹, 즉 ‘저승의 관리’라 소개한다. 이는 영화 <월로>에서 월로들의 신분이 ‘저승의 관리’라는 것과 일치한다.

<관원영녀>는 서사가 <정혼점>과 매우 흡사하여 함께 거론되는데, 월하노인이 아닌 점쟁이가 예언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며, 저승관리나 월하노인도, 붉은 실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줄거리가 매우 흡사하여 서사의 異同을 엿볼 수 있으며, ‘정해진 운명의 인연’이라는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전영숙은 그의 논문에서 월하노인 설화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정혼점>이나 <염경>은 『광이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대략 8세기 후반에 본 설화가 쓰여졌음을 미루어 볼 때 관련 설화 가운데 <염경>이 가장 먼저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⁵⁾ 『옥당한화』는 五代 王仁裕(880-956)가 撰한 것으로 세 작품 중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다. 세 작품을 순서대로 보면 <염경>, <정혼점>, <관원영녀> 순으로, 본래 혼인을 주관하는 것은 저승관리였으나 이후 이 복언에 의해 ‘달빛 아래의 노인’으로 형상화된 이미지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이후 저승관리가 아닌 ‘신’으로 승격되어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4) 마서전 지음, 윤천근 옮김, 『중국의 삼백신』, 서울: 민속원, 2013, 66-68쪽.

5) 전영숙, 앞의 논문, 73-74쪽. 顧況이 「戴氏廣異記序」에서 저자 戴孚는 자신과 같은 해에 진사에 급제했던 인물이고 57세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高황이 757년에 급제한 것으로 미루어 계산한 것임.

3. 영화 〈月老〉에 나타난 계승과 변주

논문의 전개를 위해 영화 〈월로〉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주인공 샤오룬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좋아하여 마침내 사귀게 된 연인 샤오미에게 지속적으로 청혼했는데, 농구시합이 끝나고 비 오는 나무 아래에서 목도리의 붉은 실을 풀어 두 사람의 손가락에 묶고 청혼하던 순간 벼락을 맞아 죽게 된다. 샤오룬은 저승사자에 의해 저승으로 인도된 후 환생을 앞두고 생전의 공덕과 업보로 인해 흰구슬이 5개이고 나머지는 검은 구슬인 염주를 받게 되는데, 이는 달팽이로 환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에 샤오룬은 저승에서 관리를 하여 그 공덕으로 모두 흰구슬로 만든 후 사람으로 환생하고자 한다. '月老' 즉 인연을 맺어주는 관리가 된 샤오룬은 파트너 핑키와 함께 인연을 맺어준다. 그러다 샤오미를 만나게 되는데, 샤오미의 인연을 맺어주려 했으나 붉은 실을 묶으면 실이 타버려 여러 월로들이 만 개를 시도해도 맺어주지 못한다. 핑키가 '직녀의 실'을 가져와 묶으려다 샤오미가 사실은 월로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고 샤오룬과 샤오미는 다시 연애를 한다. 한편 鬼頭成이라는 牛頭가 죄를 짓고 우물에 갇혔다가 탈출하여 악귀가 되어 전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데, 샤오미가 그중 하나였기에 공격을 받게 된다. 샤오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샤오룬은 자신의 가슴에서 뽑아낸 붉은 실로 인연을 맺어주고 빛이 되었다가 인간으로 환생한다.

영화 〈월로〉에 나타난 전통서사의 계승과 변주에 관해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저승, 저승관리들, 인과응보와 환생, 월로과 붉은 실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저승

중국 전통시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칭하는 명칭은 사상적 배경에 따라 陰間, 泰山, 地獄, 冥界, 冥府 등 다양하다. 〈월로〉에서는 '음간'이라고 칭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저승’에 가장 가까우므로 저승이라 칭하기로 한다. 영화 <월로>에 표현된 저승 세계의 시스템은 현대적이며 배경은 황폐한 돌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마치 제 주도의 주상절리가 이어진 듯한 검은 바닥이나 벽으로 되어있다. 저승의 현대적인 세계관은 샤오룬이 죽어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영화 <월로>에서 그려지는 저승은 현대화된 저승으로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먼저 샤오룬이 죽어 저승에 도착한 장면을 보면 저승의 행정은 모두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컴퓨터 모니터도 작고 앞뒤가 두꺼운 90년대 CRT모니터에, 화면도 화소가 큰 구형으로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모습은 아니다. 혀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터널 코드를 생성하고 컴퓨터로 이터널 코드를 배정, 수정팔찌에 인식하면 흰구슬과 검은 구슬의 개수가 정해진다. 이때 스캐너로 이마를 읽어 전생의 기억을 읽는데 샤오룬은 벼락을 맞아 이마에서 기억이 읽히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죽은 이들은 전생을 기억하는데 샤오룬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자 <이터널 코드 스캐너 오류 해결가이드[永恒編碼掃碼器-故障排除書]>를 펼친다. 그리고 저승관리는 ‘前生紀錄’ 테이프를 보고 인생주마등 대표사진을 고르게 한 뒤 CD로 제작한다. 그 와중에 샤오룬이 주위에 석판과 죽간 등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펼치며 무엇인지 묻자, 샤오룬의 前生이라고 알려주는데, 거기에는 각각 석판이나 죽간, 종이책에 선인장, 물고기, 매미로 여러 차례 환생했음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다.

저승에 대한 설명도 샤오룬은 모니터를 통해 듣게 된다. 예전에 있었던 지옥의 칼산, 기름가마, 눈알파내기, 혀뽑기⁶⁾ 등은 개혁으로 폐지 되었으며, 끝없이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저승의 배를 타고 극락, 천국, 파라다이스, 정토, 선경, 신들의 땅으로 출발하나 몇 년을 가도 도착하지 못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았으니, 바로 ‘환생[脫胎]’이라는 것이다. 극락, 천국, 파라다이스, 정토, 선

6) 이 외에도 칼나무, 끓는 가마솥, 맷돌에 갈리기, 달군 쇠 구슬 먹이기 등 다양한 지옥의 모습이 있다. 연소영, 「佛經의 地獄相 類型研究」, 『중국어문학논집』, 2012.

경, 신들의 땅 등을 보면 불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 도교 등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총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터널 코드로 배정된 손목의 염주 구슬은 전생의 성적표로서, 흰색은 功德, 검은색은 業障, 즉 선보와 악보를 나타낸다. 모두 검은 자는 혼이 소멸하고, 흑백이 섞인 자는 여러 동물이나 곤충으로 환생되며, 벌레나 동물로 환생하기 싫은 경우 인구폭발로 바쁜 신들을 도와 다양한 ‘神職’, 즉 저승의 관직에 신청해 세상에 공헌하면 검은 구슬이 흰 구슬로 변해 중국에는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권유한다.

반면에 인간으로 환생하는 이들은 흰 옷을 입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판기에서 기억을 지우는 망각탕을 뽑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난다. 극락으로 가는 영혼의 모습은 영화 후반에 나오는데, 불빛으로 변한 혼들이 저 멀리 태양이 떠오르는 땅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흡사 우주와 같이 광활하다.

이렇듯 컴퓨터, 스캐너, 자판기, 엘리베이터 등으로 표현되는 저승은 현대화된 이승을 반영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통스러운 지옥은 배제되었고, 비록 배경은 어두운 각진 검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친숙한 기기들이 보이며 다소 안도감을 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화된 이승을 반영한 저승, 바꾸어 말하면 사후의 세계를 현실과 비슷하게 상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단순히 영화의 배경을 위해, 현실감을 위해서 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상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비단 현대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다. 일찍이 唐代 文言小說에 보이는 冥界도 성문으로 들어가면 관부의 건물들이 있는 관청과 흡사한 곳이나, 기와집에 누각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인간세상과 똑같았다.(一同人間)”⁷⁾고 할 만큼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Lovejoy는 『존재의 대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에서 저 세상, 즉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

7) 이방 등, 김장환 외 역, 『太平廣記』, 서울: 학고방, 2001-2004, 권375~권386 再生類 참고, 인용은 권제378:5 <貝禮> 고사.

생각하는 것은 이승에 대해 연연하는 것이며, 상상한 것이 만약 이승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이승을 그리워하는 최극단의 표현이라고 했다.⁸⁾ 余英時도 『東漢生死觀』에서 來生 관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죽음 이후의 현실의 반영에 대해 이승에 대해 연연하며 놓지 못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⁹⁾ 그리고 지우바다오 감독이 “살아있을 때 아쉬움이 남은 일들을 죽어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¹⁰⁾ 라는 말도 이승에서의 일에 연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작가이자 감독 지우바다오는 단순히 연연해서 아쉬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 이처럼, 현대화된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현실을 반영한 저승은 현대의 주인공 샤오룬이나 다른 이들이 이승에서의 아쉬운 일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저승관리들

영화 <월로>의 저승관리직은 <저승관리수칙[神職守則]> 이라는 책자에 설명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勾魂, 월로, 送子 등이 있다. 구혼은 勾魂使者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를 말한다. 월로는 월하노인을 일컫지만, 영화에서 저승의 관리이므로 인연을 맺는 중매인의 상징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자는 아이를 점지해 주는 존재로, 우리나라의 삼신과 같다. 영화 화면에 일부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파악이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승사자: 첫째, 사람이 죽으면 죽은 혼을 저승으로 데려온다. 둘째, 죽은 혼의 자료를 만들고 죽은 혼에게 저승의 규칙을 설명해주며, 신직 및 환생 등을 설명해준다. 셋째, 죽은 이의 정보를 찾아 밝히거나, 죽

8) Authur O. Lovejoy 저, 차하순 역, 『존재의 대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 서울: 탐구당, 1984, 36-39쪽 참고.

9) 余英時, 『東漢生死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9쪽

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004>

은 혼을 위로하는 것은 저승사자의 가장 큰 역할이다.
 월로: 첫째, 연분을 이용해 붉은 실을 짜내어 다양한 인연을 묶는다.
 둘째, 열 개의 사당을 파괴할망정 한 가문의 혼사는 해하면 안되니[寧破十座廟, 莫壞一門親], 애정은 일생의 중요한 일이다. 셋째, 어떠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애정을 맺게 할 수 있으니, 바로 월로의 공로이다.
 삼신: 첫째, 인신과 낱고 기르는 일을 관장하는 神明이다. 둘째, 이 저승관직은 여성만이 담당한다. 셋째, 낱고 기르는 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를 하는지 감독한다.¹¹⁾

전통시기 중국소설에서 저승사자는 황의 혹은 백의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며, 대체로 한 명 혹은 두 명의 사자가 양쪽에서 죽은 이의 옆구리를 끼고 데려가거나 혹은 저승사자가 죽은 자를 부르며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죽은 이를 데려가는 것은 '사자'이며, 죽은 이가 당도하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관복을 입은 관리로 묘사된다.¹²⁾ 영화 <월로>에서 저승사자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망자를 데려가는 것을 제외하고 저승사자의 모습, 하는 일, 임무의 다양화 등은 모두 전통 모티프를 이용한 변주의 하나로, 영화에 이채를 더해주고 있다.

영화 <월로>에 나오는 저승사자는 검은 망토에 검은 모자를 쓰고 샤오룬을 데리고 저승으로 간다. 그리고 샤오룬이 죽었음을 알려준다. 샤오룬은 갑작스런 죽음에 자신이 죽었는지도 몰랐다가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저승관리수칙> 설명을 참고해 보면 컴퓨터로 죽음 절차를 진행하는 관리도 저승사자에 해당하는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한 모습으로 역시 검고 흰 구슬염주를 손목에 차고 있어 죽은 이가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저승관리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캔하여 생전의 행적을 기록하고, 환생할 몸을 알려주며, 신직을 수행하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음을 샤오룬에게

11) 영화 <월로> 중에서(이하 영화에서 인용한 내용은 모두 같다). 영화는 네플릭스에 방영된 작품을 참고했으며, 네플릭스에서는 2025년 7월 14일로 서비스 종료되었다.

12) 이방 등 편, 김장환 외 역, 앞의 책, 권375~권386 再生類 참고. 이밖에도 377:1<趙泰> 고사의 경우 누런 말을 탄 두 사람이 등장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러준다. 영화에서 삼신은 나오지 않는다. 월로에 대해서는 붉은 실과 관련 하여 4절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책자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화 <월로>에 다른 저승관리들도 나온다. 바로 牛頭이다. 불교에서 牛頭阿傍을 牛頭阿傍이라고도 하며, 지옥에 있는 대표적인 귀신족으로 손꼽힌다. 우두아방은 소 머리에 사람 손을 가지고 두 발은 소 굽과 같고 힘은 장사로 산을 짊어질 수 있으며, 지옥에서 벌을 받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여덟 번째, 어떤 중생들은 항상 끓는 가마솥 속에 있게 되며 牛頭阿傍이 세 갈래 창으로 끓는 가마솥 속에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끓여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다시 바람이 불어 살아나면 다시 그들을 끓입니다. 이는 어떤 죄가 이룬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생에 그릇되고 진도된 견해를 믿고 귀신에게 제사지냈거나 중생을 도살하여 끓는 물속에 집어넣고 털을 뽑고 끓는 술에 넣고 졸이고 삶고 하는 일이 한량없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얻게 된 것이다.”¹³⁾

위에 인용한 『佛說罪業應報教化地獄經』에 보이듯 우두아방은 펄펄 끓는 가마솥으로 된 지옥인 鑊湯地獄에 삼지창으로 사람을 빠뜨리는 존재로 자주 묘사되며, 지옥의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거나 채찍질하기도 한다.

『廣弘明集』권27 「誠功篇」에는 우두아방을 여덟 큰 지옥 중 가장 밑에 있는 阿鼻地獄 안에 있는 작은 지옥들의 주군이라 설명하고, 역시 성품이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고통받는 중생에 대해 자비심이 없다고 하자, 우두아방이 말하길, 여러 고통을 받는 이들은 惡業을 지어 지옥으로 와서 고통을 받는 것이며, 고통을 받는 것이 끝나면 훈계를 하면서 다시는

13) “第八復有衆生，常在鑊湯中，爲牛頭阿傍，以三股鐵叉入內，著鑊湯中，煮之令爛，還復吹活，而復煮之。何罪所致?” 佛言，“以前世時，信邪倒見，祠祀鬼神，屠殺衆生，湯灌滅毛，鑊湯煎煮，不可限量，故獲斯罪。” 『高麗大藏經』·『佛說罪業應報教化地獄經』 K0781, V19, P0871a17L~P0871a22L.

오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중생이 애초부터 참회하지 않았으므로 나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지옥에 오곤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무리들은 쉼을 닦지 않기에 고통을 갑절로 하는 것이니 인자함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¹⁴⁾

영화 <월로>의 우두는 불교의 우두아방 모티프를 이어 변화를 준 것이라 하겠다. 군복 혹은 경찰복 같은 검은 제복에 망토를 둘렀고 손목에 다른 관리들과 달리 붉은 엄주를 세줄로 감고 있으며, 저승의 다른 관리들을 다스리거나 징벌을 내리는 존재로 등장한다. 악귀로 변한 귀두성을 잡으러 다니고, 죽은 자이자 저승의 월로인 샤오룬이 살아있는 사람인 샤오미와 연애를 하자 샤오룬을 잡아와 엄격하게 재판하고 벌을 내리기도 한다.

불교에서의 우두아방이 지옥에서 벌을 받는 자들을 관리, 감독, 처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 <월로>에서의 우두들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교의 우두아방이 이름과 같이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반면, 영화 <월로>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제복을 입은 경찰과 같은 모습은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 인과응보와 환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인공 샤오룬은 달팽이가 아닌 사람으로 환생하기 위해 월로가 되는데, ‘환생’은 이 영화에서 붉은 실, 월로와 더불어 중요

14) 이 내용은 다음 원문을 참고하여 주려 설명한 것이다. 何謂地獄? 經中廣說, 此洲地下八大地獄, 最下阿鼻, 四萬由旬, 鐵城四周, 表裏火徹, 銅狗黑蛇嗥吼嚼咋, 甚可怖畏. 諸小獄者, 散在鐵圍山間, 海者空野, 衆處. 備受寒熱, 難可具說. 獄各有主, 牛頭阿傍其性殘虐, 無一慈忍. 見受苦者, 惟憂不苦, 惟憂不毒. 或問獄卒: “衆生受苦, 甚可憐愍, 而汝無慈常懷毒害.” 獄卒答曰: “諸受苦者, 由是不孝父母, 謗佛、法、僧, 罵辱親疏, 毀陷一切, 破壞和合, 瞋恚殺害, 貪姪欺詐, 邪命邪求, 及以邪見, 憍慢懈怠, 放逸怨恨, 迷沒聲色, 耽著酒食, 犯所受戒不知慚愧, 具足惡業來此受苦. 受苦既畢, 恒加諫喻: 此是惡處, 今已得脫, 勿復重來. 然此衆生初無改悔, 今日得出, 俄頃復來, 勞我形力, 加毒於彼. 今觀此輩既不修善, 往趣泥洹則是無知, 不識避苦, 所以倍痛苦之. 何由得出慈忍.” 『高麗大藏經』·『廣弘明集』 27권, K1081, V33, P0601c02L~P0601c17L

한 모티프가 된다.

환생은 고대 인도 『베다』에 기원을 두고 『우파니샤드』의 五化二道說이 발전된 내용을 불교가 받아들였고, 불교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된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즉 윤회할 때 그 果報에 따라 다른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환생이라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여러 불경 중 『佛說罪福報應經』에서는 공덕과 업보에 따라 각각 가게 되는 地獄와 그곳에서 받는 벌, 그리고 그에 따라 還生하는 존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좋은 말과 착한 말썹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기를 즐기지 않고 그 안에서 요란하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법문 듣는 것을 어지럽히면 뒤에는 귀가 늘어진 개가 되고, 설법하는 말썹을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귀가 긴 당나귀의 무리에서 태어나며, 탐내는 마음으로 혼자 먹으면 아귀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빈궁하고 굶어서 몸 가릴 옷이 없으며,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나쁜 것을 남에게 주면 뒤에 돼지와 쇠똥구리[蜚蜋]로 태어나고...¹⁵⁾

위에 인용한 『佛說罪福報應經』의 내용은 죄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환생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인용된 개, 당나귀, 돼지나 쇠똥구리 외에도 염소, 하루살이, 소, 말, 노비, 닭이나 오리, 올빼미와 구육새, 원숭이, 비둘기, 코끼리, 물소로 환생하는 업보를 설명하고 있다.

영화 <월로>에서는 손목에 거는 염주의 구슬 수에 따라 다음 환생할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구슬은 모두 20개로, 처음 샤오룬이 죽었을 때, 저승 관리인 모두 검정은 죽자마자 소멸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흑백이 섞인 자는 닭, 오리, 물고기, 돼지, 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모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엔딩에서 각각의 흰 구슬 수에 따라 환생하는 몸을 보여준

15) “聞好言善語心不樂聞，於中聞語亂人聽受經法者，後爲耽耳狗。聞說法語心不滄採，後生長耳驢馬之中，慳貪獨食墮餓鬼中，出生爲人，貧窮飢餓衣不蔽形。好者自噉惡者與人，後墮猪豚蜚蜋中…” 『高麗大藏經』·『佛說罪福報應經』 K0838, V20, P1176b23L~P1176c24L.

다. 영화 초반과 엔딩 후에서 보여지는 동물에 차이가 있는데, 엔딩 후에 나온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슬상태	환생하는 동물	구슬상태	환생하는 동물
모두 검정 구슬	소멸	흰구슬 10개	뱀
검정 구슬에 흰 점	대변	흰구슬 11개	비둘기
흰구슬 1개	선인장	흰구슬 12개	돼지
흰구슬 2개	매미	흰구슬 13개	바다거북
흰구슬 3개	바지락	흰구슬 14개	펭귄
흰구슬 4개	작은보호담해파리	흰구슬 15개	곰
흰구슬 5개	달팽이	흰구슬 16개	알파카
흰구슬 6개	바퀴벌레	흰구슬 17개	돌고래
흰구슬 7개	카멜레온	흰구슬 18개	원숭이
흰구슬 8개	바닷가재	흰구슬 19개	개
흰구슬 9개	박쥐	흰구슬 20개	사람
		흰구슬 20개 +1	고양이

[표1] <염주 상태별 환생하게 되는 존재>

환생하게 되는 존재로서, 불경과 영화 <월로>에 각각 다양한 동물이 나온다. 그 중에서 불경과 영화 <월로> 둘 다에 나타나는 동물은 개, 돼지, 원숭이, 비둘기, 닭이나 오리가 있다. 불경에서는 좋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귀가 늘어진 개가 되고, 좋은 것을 자기가 먹고 나쁜 것을 남에게 주면 돼지가 되며, 즐겨 술을 마시고 취해 서른 여섯가지 실수를 저지르면 원숭이가,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주 싸워 서로서로 쫓아 내면 뒤에 비둘기가, 남의 부인이나 남편과 바람을 핀 사람은 닭이나 오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경에서 가장 나쁜 죄로 여기는 것은 살생인데, 이 경우 하루살이로 태어나 아

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다.¹⁶⁾ 반면 <월로>에서는 죄에 따른 구슬의 색은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소멸이나 생물도 아닌 대변으로 시작해서 흰 구슬이 많아질 수록 대체로 식물, 곤충, 바다 생물, 양서류, 조류, 포유류, 사람으로 환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고양이인데, 불경에서는 고양이는 언급이 없을뿐더러 영화에서는 20개의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이 되고 거기에 더해 흰 구슬이 한 개 더해져야 고양이로 환생한다고 되어있다. 고양이가 사람보다 나은 것인가. 고양이로 태어나려면 인간으로 환생할 때보다 덕업을 더 많이 쌓아야 하도록 묘사한 것에 대해 감독인 지우바다오는 “인간은 고양이 집사일 뿐”이라 답했다.¹⁷⁾ 사람을 집사 취급하는 고양이와 그런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예쁨 받는 일생을 살려면 공덕을 더 쌓아야 함을 나타낸 것인데, 지우바다오 감독의 인간 및 동물관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영화 <월로>에서는 자신이 지은 공덕과 업보에 따라 환생하는 몸이 정해진다는 설정인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전생과 같다. 그런 전통적인 윤회의 내용을 계승하여 반영하면서도, 영화 <월로>는 그 표시로 ‘검고 흰 구슬로 된 손목염주’라는 변주를 주어 극명하게 공덕과 업보를 나타내고, 지옥 사람들의 환생 단계나 주인공 샤오룬과 파트너 핑키의 공덕의 변화 등을 읽기 쉽게 나타내며 더 나아가 흰 구슬을 완성해서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영화전반에 걸친 주요 서사로 작용하게 한다.

16)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불경 내용을 참고했다. 聞好言善語心不樂聞，於中聞語亂人聽受經法者，後爲耽耳狗。聞說法語心不滄採，後生長耳驢馬之中，慳貪獨食墮餓鬼中，出生爲人，貧窮飢餓衣不蔽形。好者自嘔惡者與人，後墮猪豚蜚蠅中，劫奪人物後墮羊中，人生剝皮。意殺生者後生水上浮游蟲，朝生暮死，意偷盜人財物者，後生牛馬奴婢中償其宿債。意姪他人婦女者，死入地獄。男抱銅柱，女臥鐵牀。出生爲人墮鷄鴨中，意作妄語傳人惡者，入地獄中洋銅灌口，拔出其舌以牛犁之。出生墮惡聲鳥鶴鸚鵡中，人聞其鳴無不驚怖，皆言變怪呪令其死。意飲酒醉犯三十六失，後墮沸屎泥犁中，出生墮狴狴中，後爲人愚癡頑無所知。夫婦不相和順者，數共鬪諍更相驅遣，後生鴿鳩鳥中，貪人力者後生象中，爲州郡令長粟食於官者，無罪或私侵人民鞭打捶杖，逼強輸送告訴無從。桁械繫錄不得寬縱後墮地獄神受萬痛數千億歲從罪中出墮水牛中貫穿鼻口挽船牽車。大杖打撲償其宿罪。『高麗大藏經』·『佛說罪福報應經』 K0838, V20, P1176b23L~P1176c24L.

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004>

4) 월로와 붉은 실

월하노인은 2장에서 세 작품에서 보았듯이 본래 혼인을 주관하는 ‘저승관리’이다. 이는 영화 <월로>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 <정혼점>에서는 인연이 태어나자마자 밭에 묶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진 반면, <염경>에서는 이미 묶여 있던 줄을 풀어 다른 사람에게 묶는다는 변동성이 있다. 그러나 묶여 있는 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화 <월로>에서는 다양한 변주가 보이는데, 샤오룬이 월로가 되는 과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맨 처음 저승에 가서 여러 과정을 거쳐 월로가 되기로 한 후, 다른 월로 희망자들과 모여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교육자 두 사람이 각각의 검지 손가락을 맞대자 붉은 실[紅線]이 생겨난다. 교육자는 월로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붉은 실은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묶어주며,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흰구슬이 생기고, 나쁜 인연을 맺어주면 검은 구슬이 생겨 몇 백년이 지나도 환생할 수 없다. 붉은 실을 묶으려면 두 월로가 뜻을 모아야 한다. 또한 연애와도 같이 파트너와 함께 훈련하고 최종테스트를 통과해야 월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패시 강제 환생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그들이 월로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 시킨다. 월로 훈련 1단계는 마네킹의 손에 붉은 고리를 걸기, 2단계는 이동하는 마네킹에 달린 움직이는 팔에 붉은 고리 걸기이다. 한편으로는 <月老手冊>을 공부한다.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별은 단지 한 사람의 동의만 필요로 한다. 함께 있거나 두 사람이 인정하면 이별이라 보지 않는다.” “로맨스의 묘미는 불확실함이다.” 등으로, 이별을 판별하는 내용들을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 테스트에 떨어져 강제 환생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샤오룬과 파트너 핑키를 비롯한 테스트에서 통과한 월로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승으로 나간다. 신나게 붉은 실로 인연을 맺어주는데, 실이 이어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애정이 생기게 된다. <월로>에서도 붉은 실이 묶이면 반드시 인연이 맺어지는 것은 당대 <정혼점>, <염경> 작품과 같으나, 사

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맺어주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

붉은 실은 앞서 <정혼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월하노인이 보파리에 가지고 다니며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발에 묶어주는 실이었다.

영화<월로>에서는 보파리에 든 실이 아니라 저승 한가운데에 굵은 붉은 실이 있고 그 가닥들이 사방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간 형태로 되어있으며 밝게 빛난다. 한 월로가 그들의 혼련관에게 첫 번째 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자 견우와 직녀에 나오는 직녀가 변한 것이라 대답한다.

전설에 따르면 견우와 직녀는 칠월칠석에만 만나잖아. 직녀는 견우가 보고 싶어 매일 구슬뜨게 울고 또 울었지. 직녀는 계속 울다가 마침내 붉은 실로 변했대. 일종의 발원이랄까? 연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니 정말 고결하지.

붉은 실이 직녀가 변한 것이라는 내용은 지우바다오 작가의 상상력으로, 붉은실 모티프의 흥미로운 변주라 할 수 있다. 견우와 직녀 설화의 직녀는 직녀성, 즉 우리가 베가(Vega)라 부르는 하늘에서 다섯 번 째로 밝게 빛나는 거문고자리 별이 신격화, 인격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그 과정을 거쳐 견우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¹⁸⁾ 그런데 영화 <월로>에서 다시 한 번 변화를 거쳐 직녀는 인연을 맺어주는 붉은 실이 되었는데, 직녀의 고결함과 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영화 <월로>에서 월하노인과 붉은 실의 가장 큰 변주는 샤오미의 손가락에 붉은 실 걸기이다. 샤오룬이 샤오미를 발견하고 계속 샤오미 곁에 머물게 되는데, 핑키는 샤오미도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자 여러 월로들이 후보를 이야기 하다가 그 중 한명의 실을 샤오미에게 붉은 실을 거는데, 순간 타서 끊어지게 되고 월로들은 어리둥절해 진다. 그 후 다른 월로들이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붉은 실은 끊어지게 되고, 월로들은 경쟁적으로 붉은 실을 걸지만 모두 실패하여 그 수가 만 개를

18) 마서전 지음, 윤천근 옮김, 앞의 책, 65쪽.

넘게 된다.

그러자 샤오룬의 파트너 핑키는 직녀의 붉은 실을 가져와 샤오미의 온몸에 칭칭 두르고 붉은 실에서 나온 여러 가닥으로 샤오미의 여러 손가락을 묶는다. 그러자 샤오미는 손가락을 들고 샤오룬을 쳐다보는데, 알고보니 샤오미는 벼락을 맞은 후부터 귀신을 볼 수 있는 陰陽眼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 후로 둘은 샤오룬이 죽기 전처럼 사귀게 되지만 후에 샤오룬과 핑키는 우두에게 잡혀와 신직을 박탈당하고 절벽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

영화 <월로>에서는 샤오룬이 새로운 붉은 실을 만들어낸다. 악귀가 된 귀두성에게 공격받은 샤오미가 중상을 입고 죽어가며 몸이 재가 되어 사라지려고 하자, 샤오룬은 파트너 핑키와 함께 검지 손가락으로 붉은 실을 만들려 하지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샤오룬은 사람과의 연애로, 핑키는 직녀실의 남용으로 벌을 받아 월로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샤오룬은 자신의 심장에서 어렵게 실을 꺼내 한쪽은 샤오미의 손에 묶었고, 한쪽은 핑키가 인연을 찾아 달린다. ‘月老法 제 2조’에 의하면 ‘실로 묶이면 인연이 시작되어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사라져가는 샤오미의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어렵사리 수의사 친구와 맺어주게 되고, 샤오미는 살아난다. 그와 동시에 샤오룬은 빛이 되어 산산이 흩어진다. 이는 붉은 실 모티프의 또 하나의 변주로, 샤오룬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고결한 붉은 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대 <정혼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는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어 혼인했으며, 가문끼리의 결합이었다. 주인공 위고와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맺어지지만, 애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이는 당시 보편적인 결혼 형태였다. 심지어 위고는 세 살 짜리 자신의 인연이 채소장수 딸인 것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좋은 집안과 혼인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영화 <월로>에서는 월로들이 ‘사랑’으로 맺어주게 되는데, 이는 현대 애정관을 반영한 당연한 설정이라 하겠다. 당대 작품에서는 사랑이 없지만 이루어지는 인연을 그렸다면, <월로>에서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헤어지는 인연을 담았다. 샤오룬은 그 공덕으로 인간으로 환생하며, 흰

구슬을 모두 채우고 샤오룬과 맺어지고 싶어하는 핑키의 환생과 만나게 되고 붉은 실이 이어지게 된다.

4. 결어

본고는 전통시기 붉은 실과 월하노인 서사가 영화 <월로>에 어떻게 계승되고 변주되고 있는지 밝힌 연구이다.

먼저 서사 기원이 되는 당대 <정혼점>을 비롯한 <염경>, 오대 <관원영녀>을 살펴보았다. 월하노인은 본래 혼인을 주관하는 것은 저승관리였으나 이후 이복언에 의해 <정혼점>에서 ‘달빛 아래의 노인’으로 형상화된 이미지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이후 저승관리가 아닌 ‘신’으로 승격되어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 <월로>에 나타난 붉은 실과 월하노인, 그리고 여러 전통 모티프의 계승과 변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영화 <월로>에서 그려지는 저승은 현대화된 저승으로, 배경은 황폐한 돌세계로 표현되고 있으나 시스템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이승을 그리워하는 최극단의 표현일 수 있는데, 이는 지우바다 오가 영화를 만든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현대화된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현실을 반영한 저승은 현대의 주인공 샤오룬이나 다른 이들이 이승에서의 아쉬운 일을 바로잡고 한결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월로>의 저승관리로는 저승관리, 월하노인, 삼신, 우두아방 등이 등장한다. 전통시기에 나타난 저승사자와 비교해 보면 망자를 데려가는 것을 제외하고 저승사자의 모습, 하는 일, 임무의 다양화 등은 모두 전통 모티프를 이용한 변주의 하나로, 영화에 이채를 더해주고 있다. 우두아방도 지옥에서 벌을 받는 자들을 관리, 감독,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여러 차이를 보인다.

‘환생’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프 중의 하나이다.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 환생관념을 충분히 계승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주를 주고 있다. 환생하는 동물이나, 그것을 나타내는 손목의 염주, 저승관직을 수행해 모두 흰 구슬이 되면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는 등 다양한 변주와 그 활용을 분석했다.

월하노인은 본래 혼인을 주관하는 ‘저승관리’이다. 이 내용은 영화 <월로>에서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변주가 보이는데, 죽은 샤오룬이 월로가 되는 과정이나 월로수칙, ‘사랑’으로 인연을 맺는 등 다양하다. 붉은 실은 앞서 <정혼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월하노인이 보따리에 가지고 다니며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발에 묶어주는 실이었으나 <월로>에서는 직녀가 연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변한 것으로 변화했다. 샤오미가 붉은 실로 이어지지 않거나, 샤오룬이 자신을 희생해 심장에서 붉은 실을 만들어 낸 것은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변주의 묘미이다.

이렇듯 붉은 실과 월하노인의 전통서사가 계승된 점은 월하노인이 저승관리인 점, 붉은 실이 이어지면 반드시 인연이 맺어진다는 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인과응보에 의한 환생, 직녀가 변한 붉은 실, 샤오룬이 만든 붉은 실, 저승 세계관 등에서는 그 변주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슬퍼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완수하지 못한 일을 죽어서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묘사된, 그러한 사후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붉은 실, 월하노인과 환생서사의 결합은 매우 독특한 영화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구현함에 있어 현대성과 전통성이 조화롭게 융화되어 성공적으로 전통서사를 현대영화와 이어주어 작품 안에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과 현대 문화의 공존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參考文獻

- 『高麗大藏經』 K0781 『佛說罪業應報教化地獄經』
- 『高麗大藏經』 K1081 『廣弘明集』
- 『高麗大藏經』 K0838 『佛說罪福報應經』
- 모종혁 「2021년 대만 영화산업 결산」, 『통신원 리포트』 권20호, 영화진흥위원회, 2022.
- 연소영, 「佛經의 地獄相 類型研究」, 『중국어문학논집』, 2012.
- 이하나·박응석, 「인지언어학을 통한 문화콘텐츠 <월하노인>의 재현 양상 분석」, 『중국어교육과연구』, 2024.
- 전영숙, 「한·중 인연신 월하노인 설화의 전개 양상 비교」, 『語中文學』, 2020.
- 정재민, 「韓中 天生緣分說話의 비교 연구」, 『口碑文學研究』, 2005 .
- 최진아(2019), 「당나라 소설 <정혼점(定婚店)-인연을 맺어주는 가게>를 활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실례」,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 한명숙, 「한중천생연분설화비교연구」, 『비교민속학33』, 2007.
- 이방 등 모음, 김장환 외 옮김, 『太平廣記』, 서울: 학고방, 2001-2004
- 마서전 지음, 윤천근 옮김, 『중국의 삼백신』, 서울: 민속원, 2013.
- Athur O. Lovejoy 지, 차하순 역, 『존재의 대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 서울: 탐구당, 1984
- 才崢, 「唐人小說中月老形象的文化內涵」, 『科教文匯(下旬刊)』, 2008.
- 龔維英, 「月下老人原為女性」, 『社會科學輯刊』, 1988.
- 谷文彬·張曉雪, 「古典的遺傳—論現當代作家對《定婚店》故事的重」,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2.
- 胡迎迎, 「《新編婚禮備用月老新書》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9.
- 金榮華, 「《定婚店》故事試探」, 『廣西師範學院學報』, 2003.
- 陸茂清, 「“月老”傳說」, 『跨世紀(時文博覽)』, 2011.
- 羅京京, 「月老配婚型民間故事研究」,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22.

- 莫愁, 「“月老婚配”故事的文化解讀」, 『廣西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
- 石麟, 「“月老”的功過及其文學指向」, 『古典文學知識』, 2012.
- 王芬芳, 「姻緣自有因緣——讀劉家朋《看, 那公平的月老》后感」, 『三角洲』, 2023.
- 尹偉, 「唐傳奇《定婚店》與民間文學」, 『三峽大學學報』, 2009.
- 余英時, 『東漢生死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臧盧璐, 「中國月老故事研究」,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張舉文·桑俊, 「“定親”型故事中“月老”形象傳承的文化根基」, 『民俗研究』, 2017.
- 張同利, 「“月老”考論」, 『西北大學學報』, 2012.
- 張曉雪, 「唐傳奇《定婚店》故事接受研究」, 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22.
<https://kabc.dongguk.edu/index>(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www.netflix.c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004>(지우바다오 감독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h0APR3QpAXA>(2021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우바다오감독 영상인사)

Abstract

Modern Succession and Variations of Red Strings and Yuelao(月老)'s Narrative in Taiwanese Movies

— Focused on <Till We Meet Again(月老)>

Yeon, So 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how the traditional period's red thread and Wolha elderly narratives are inherited and varied in the film <Till We Meet Again(月老)>.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the Yuelao[月老] and the red thread narrative were recognized as symbols of marriage and matchmaker in the narrative. The content that the Yuelao tie up the red thread to form a relationship is seen in the <Dinghundian(定婚店)> of the Tang Dynasty, and this <Dinghundian(定婚店)> is recogn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work in that it is the appearance of the Yuelao. In this paper, we look at <YanGeng(閻庚)> and <GuanYuanYingnü(灌園嬰女)>, including <Dinghundian(定婚店)>, which are the origin of the narrative of the film Yuelao, and reveal its succession and variations by considering the accepted and changed points compared to the film <Till We Meet Again>.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modern variations of the film <Till We Meet Again> was analyzed based on the Yuelao narratives and the contents related to reincarnation in the traditional period. Through this, the modern variations embodied in the film <Till We Meet Again> by writer and director JiuBaDao based on classical history and religious content were identified and their significance was revealed.

Key words : Dinghundian(定婚店), YanGeng(閻庚), GuanYuanNüYing(灌園女嬰), red thread, Till We Meet Again, Yuelao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2025. 8. 15. / 게재확정일 : 2025. 8. 20.